

마을 역사 찾기 등 '생활 속 인문학' 뜬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마을' 프로젝트
광산구 로템·달꿈·까망인문마을 강의·토론
인문학 매개로 지역 주민과 다양한 소통



'까망인문마을'이 진행하는 '인문마을' 프로젝트 장면.

(호남학연구원 제공)

평생 교육 시대로 들어서면서 인문학이 뜨고 있다. 인문학이 더 이상 대학 내에서만 공유되는 '강단의 인문학'에만 한정되지 않는 요즘, 곳곳에서 생활 속 인문학, 주민들과 함께하는 인문학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 마을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를 알아가자는 '인문마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세 마을은 모두 광산구에 소재한다. '로템인문마을' (신창동 로템나무 카페), '달꿈인문마을' (하남대로 달꿈카페), '까망인문마을' (비아중앙로 도란도란카페)로, 우리 동네를 알아가는 '인문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3개 마을플랫폼들과 함께 7월 7일까지 펼쳐지는 활동은 각 마을플랫폼 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인문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8월 호남학연구원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학술연구사업, 공익활동 지원의 수행을 위해 체결했다.

인문마을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기성 교수는 "인문학이 지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녹아들어 긍정적인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로템인문마을에서는 '문예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대화의 가능성'을 주제로 호남학연구원 이희경 교수(중문학)가 강의를 한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책임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일상적 삶을 이야기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일 첫 1차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7월 8일, 7월 22일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는 '우리는 진심일까?'를 주제로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를 읽고 이야기 시간을 갖는다. 자신이 하고픈 말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진심도 듣지 못하는 이유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3차와 4차는 각각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스타 펍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기본 텍스트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림에도 '사랑은 이해보다 강하다'는 명제들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이희경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마을 분들은 대체로 심리상담에 관심이 많다"며 "그런 맥락에서 인문학을 매개로 심리적인 부분이나 소통 방식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꿈인문마을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통한 우리



김봉호기옥

마을 제대로 알기'가 진행된다. 호남학연구원 김경호 교수(한국철학)가 김봉호 가족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인문학 강의와 이야기를 나눈다. 강의형식을 탈피해 살롱처럼 자연스럽게 앉아서 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첫날 18일은 고전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7월 2일은 '조선시대 가옥형태'를 매개로 종가집과 연계해 옛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와 삶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며 마지막 23일은 지역 자치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까망인문마을은 '동네를 다시 볼 수 있는 시야 확보하기'를 주제로 호남학연구원 김봉국 교수(역사학)가 강연을 비롯해 비아 마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오는 24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7월 8일, 22일,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1차는 '동네를 걷고 느끼고 말하기'를 중심으로 숨겨진 마을의 '장소'를 발견하고 마을을 알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차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모티브로 마을 역사 쓰기 작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토론할 계획이다. 3차와 4차는 각각 '마을 역사 찾기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다', '접경의 삶과 장소, 우리 동네를 이야기'를 진행한다. 왜 마을의 흔적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현재적 삶에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접경시대' 동네의 다채로운 풍경을 토대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봉국 교수는 "비아라는 지역은 광산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특징을 지니는 지역이다. 문화적 다양성도 풍부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지리적 특성상 중소기업을 비롯해 산업시설이 적지 않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문화자원을 긍정적으로 개발하는 단초와 아울러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의 일정은 각 프로젝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의 062-530-0734, philoseminar@jnu.ac.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처 투성이 사춘기 여고생 글쓰기 통해 마음 치유

국어교사 장정희 작가 '사춘기 문예반' 펴내



근래 들어 각급 학교에서 '책 읽기'를 교과과정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읽기는 물론 함께 가야 하는 글쓰기마저 평가 시스템에 맞춰 획일화되어 가는 듯하다. 입시전쟁에 매몰된 교육의 장 안에서 '깊이 읽고 개성 있게 쓰기'는 불가능한 현실일까.

현재 국어교사인 장정희 작가가 두 번째 청소년소설 '사춘기 문예반' (서유재)을 펴냈다.

소설은 평범한 인문계 여고 동아리인 '문예반'을 배경으로 상처투성이 사춘기 여고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마음

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통, 슬픔, 상처를 통해 산문과 소설, 시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드러내며 위로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이다.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인문계 여고 2학년 고선우는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짝꿍 주희가 이

끄는 대로 문예반에 들어가게 된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문예반원들의 첫 대면 시간. '문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문예반 교사 문재일 선생님은 예상 밖으로

몰려든 학생들 때문에 난감해한다. 이처럼 작품은 외판 섬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 온 주인공 선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고생들의 우정과, 글쓰기를 다룬 성장소설이다.

작가는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크고 작은 상처를 글쓰기의 질료로 삼아 서로를 보듬고 일어서고자 애쓰는 문예반 소녀들이다. 이들은 아픔과 고통을 명에처럼 짊어지고 살아간다"며 "돈이 없어 꿈도 꿀 수 없는 이들에게 글쓰기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 작가는 현재 광주 대광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며 소설집 '흙, 스위트 홈', 여행에세이 '슬로시티를 가다', 청소년소설 '백치GO 박치GO'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난치병어린이에게 사랑나누기·희망더하기

'광주챔버싱어즈' 연주회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특별 출연자들을 위한 무대도 준비돼 있다. 민들레컨터츠 합창단이 '비오는 독길',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로' 등 중요 공연을 펼치

'광주챔버싱어즈'가 제14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5일 오후 5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12년 동안 이어진 이번 공연은 '난치병어린이에게 사랑나누기·희망더하기'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합창지휘박사 박호진(사진)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칼 쟈킨스(사)의 '아디에무스'를 공연하며 막을 올린다. 박원자 시인의 시 '그대의 고운노래는', '하늘빛 너의 향기', '황태해장국'에 곡을 붙여 노래한다. '하나님의 사랑(Amor Dei)', '십자가 은혜(Grace of the Cross)', '하나님 나라', '기적' 등의 성가곡과 '님은 먼 곳에', '백만송이 장미', '서울 구경' 등 가요도 함께 무대에 올린다.

고, 'Joyfoul 사모합창단'이 성가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박수용 Jazz Quintet'이 'You Make me Smile', 'My Way'를 연주한다.

2004년에 창단한 광주챔버싱어즈는 지난 2007년부터 전대·조대병원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에게 6150만원의 공연수익금을 전달했으며, 광주합창전국대회 특별상, 여성중창경연대회 화목상 등을 수상했다. 전석 1만원(학생50%). 문의 010-8612-2282.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6·15선언 19주년 젊은작가들 통일문학 말하다

작가회의 15일 심포지엄

6·15선언 19주년을 맞아 젊은작가들이 통일문학을 말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안)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문학, 분단을 넘어 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광주교육대학교 매체관 시청각2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작가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북한문학', '분단소설' 등을 통일문학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평론가인 김재용 교수(원광대)가 '갈림길에 선 북한문학'을 기조발제를 한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수령의 탈신비화와 북 사회의 변화'를 문학 분야에서 탐색한다. 이어 북한 작가 정현철의 장편소설 '구기자꽃'을 '민중의 눈으로 본 고난의 행군'으로 해석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방안을 위한 남북한 문학인들의 변화 노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외 평론가인 박진일 교수(평택대)는 시조문학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민족문학론 연구'를 발표하며 김성규 시인(검은사람 대표)이 토론을 한다.

다음으로 시인인 송승환 교수(서울과기대)는 '오장환 시의 모더니티'를 주제로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결합에 대해 발표하며 시인인 김남규 교수(경기대)가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소설가인 김계영 교수(목포대)는 황석영의 장편소설 '손님'을 '분단소설의 한 가능성, 절대적 환대 공간으로서의 사마니즘' 관점으로 해석하며 평론가인 황정산 교수(대전대)가 토론할 예정이다.

김안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문학 작품 안에서도 분단의 아픈 역사는 여전히 드러나는데 이제는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분단조국의 통일문학을 위해 작가회의 차원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10-4704-8144.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 여행 UCC 공모전'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회로 나누어 '전남 여행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짜짜짜짜 전남 여행'을 주제로 한 1회차 공모전은 오는 7월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꽃·축제·음식 등 다양한 관광 소재를 활용한 영상을 담은 UCC 영상 응모하면 된다. 2018년 1월 이후 전남 지역에서 촬영

한 작품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인당 5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금상(2명) 각 200만원, 은상(2명) 각 100만원, 동상(8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는 참가신청서와 동영상 파일을 온라인(jnucc@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980-586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유기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